



부처님이 대중들 앞에서 설법하자 용이 감화를 받고 부처님이 왼쪽손에 들고 있는 그릇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의 '등용조복'. 법성포 부용루 외벽에 조각돼 있다.

영광 법성포 부용루 외벽 부처님 일대기 조각

석공예 명장 이재순씨

석공예 명장 이재순씨(49)가 전남 영광 법성포 부용루 외벽에 부처님일대기를 조각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간다라미술 양식을 띠고 있는 이 부조물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성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창 불사중인 부용루 외벽에 가로 2m, 세로 3m 정도 규모로 조각돼 있다.

이 부조물에는 연등불이 진흙 길을 걸자 석가가 머리를 땅에 대며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모습을 그린 '연등불 본생기'를 비롯해 석가가 태어난 후 7보를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 '탄생 칠보행', '태자의 결혼', '출가', '고행상', '아바라라 용왕의 귀의' 등 부처님 일대기와 불보살들이 23개면에 새겨져 있다.

김주일기자

'부처님 찾아서' 특별대상 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

영남불교대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김선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 번달 10일까지 개최한 '제2회 전국 불교만화공모전'에서 김용운씨(동아문화예술학교)가 단편만화 '부처님을 찾아서'로 특별대상(총무위원장 상), 방정현씨(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가 만화컷 '공공이의 즐거운 불교수행'으로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는 애니메이션, 단편 만화, 컷, 일러스트 등 총 1천여편이 응모했다. 시상식은 26일 오전 11시



특별대상을 받은 김용운씨의 만화 '부처님을 찾아서'. 대구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053)473-0344

도둑질을 일삼는 중생에게도 불성(佛性)이 있다는 내용의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 (원철스님 작·송미숙 연출)이 2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대학로 알과핵 소

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극단 '예식'의 제 4회 정기공연이기도 한 이 작품은 스님이 직접 대본을 썼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극 '붓다를...' 2월6일부터 공연

도둑이 수행자로 거듭나는 과정 그려

그 주인공은 천안불교문화원장 원철 스님. 매월당 문학상과 허균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탄탄한 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연극 대사 곳곳에서 불교와 문학적인 향기가 솔솔히 배어 나온다. 하지만 '붓다를...'이 일반 연극과 다른 점은 역시 스님의 오랜 산사경험이 연기 장면마다 녹아 흐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안겨 하는 모습, 대중공사 장면, 주인공인 원각 스님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산문 출송하

는 장면 등은 스님이 직접 연기 지도를 해 리얼리티를 더해준다. '붓다를 훔친 도둑'은 도둑질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말구가 절에 들어와 온갖 못된 행동을 하지만 조실 스님과 선방에 수행중인 원각 스님의 도움으로 참 수행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시말하면 제목 '붓다를 훔친 도둑'에서 붓다는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연극이 불교의 교리만 전달하려는 무겁거나 지루한 작품은

아니다. '수월관음도'를 함께 훔치자는 노스님 운학의 능청스런 꾀임에 빠져 멋모르고 절에 들어온 말구가 여러 스님들과 좌충우돌하며 벌이는 행각은 연극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말구가 술을 마시고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열렬히 부르는데, 원각 스님에게 자신의 힘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해 덤벼들다가 보기 좋게 당하는 장면 등 배꼽을 쥐게 만드는 장면도 관객 서비스를 위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여기

에 법현 스님(동국대 교수)이 법고나 열렬하는 것을, 박귀현 교수(계원 조형예술대)가 불교적 정서가 묻어나는 선적인 안무를 지도해 주제 전달에 도움을 준다. 그래도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력인데 지난해 연극무대 인생 40년의 관록을 뽐내며 이호재씨를 비롯해 이상직, 김종구, 전형재 등 중량급 배우들이 출연해 무게를 더한다. 연출가 송미숙씨는 "막연히 알고 지내는 스님들의 산사생활을 무대

로 끌어내어 물질적 욕망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자기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하고 싶었다"며 "이 연극을 보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편 극단 '예식'은 이번 공연기간중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장애우들을 관객으로 초청해 무료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 (02)357-5355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도둑질을 잘하는 말구가 절에 들어와 스님들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붓다를 훔친 도둑'.



선암스님의 렌즈속에 포착된 영산재 중 '천수바라' 의식.

렌즈에 담은 영산재

선암스님 두번째 사진집 펴내

10년동안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영산재의 모습이 한 권의 책에 담겨져 나왔다.

선암 스님(태고종 신촌 봉원사)이 89년에 이어 두 번째 '영산재(靈山齋) 사진집'을 펴냈다. 이 책의 첫 장은 불교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과 시련'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영가를 범회 도량으로 맞이한다는 '대령', 영가의 번뇌를 청정케 해주는 '관육', '공덕계, 법성계 및 회향' 등 영산재 의

식의 전 과정이 순서대로 실려있다. 법현 스님, 동희 스님, 능화 스님 등 법패의 고수들도 대거 등장한다. 특히 각 의식장면 앞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로 설명을 자세하게 달아놓아 이 책만 보면 외국인들도 영산재 의식에 관한 전반

적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이번 책에는 '식당작법 의식' 부분이 거의 빠져 있다. 2년 후에 이것만을 주제로 책 한 권을 따로 묶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선암 스님은 "밥짓는 과정부터 공양게 외우는 의식, 회향까지 전 과정을 조명해 얼마만큼 공양이라는 것이 성스럽고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할 것입니다."고 말한다.

김주일기자

방송 프로그램

05:00 아침 예보	서울 FM 101.9 MHz	22일 09:30 btn 생활문화강좌
05:45 고승열전	부산 FM 89.9 MHz	12:10 생각하는 만화
06:00 뉴스	광주 FM 89.7 MHz	12:20 군법당 순례법회
06:30 아침저널 1부	대구 FM 94.5 MHz	23일 09:30 차문화산책
09:05 차 찬전의 선율	천주 FM 96.7 MHz	10:20 재미있는 경전공부
10:05 BBS신행상담실	울산 FM 100.1 MHz	12:20 김병조 토크쇼
10:55 우리들의 찬불가		24일 07:40 혜가 스님의 신심명 강의
11:10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09:30 구본일의 명상태고, 명상음악
12:20 백팔가요		12:20 신년특집 대담 '불교와 천주교의 만남'
14:10 네트워크연결, 전국은 오늘		25일 09:30 다큐멘터리 '티벳불교'
15:05 음악의 마을		10:20 성운 스님 불경강좌
16:45 톰비동산		13:20 btn 열린마당
17:10 무명을 밝히고		26일 12:00 영상니르바나
18:00 저녁예배		16:10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18:15 유쾌한 저녁길		27일 07:40 지은 스님의 원각경 강의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09:30 생활건강백과 '오행생식'
22:05 영화음악실		12:20 TV 법회
23:05 불교문화산책		28일 09:30 다큐멘터리 '붓다의 세계'
24:00 한밤의 명상음악		12:20 btn 특강
01:00 젊은 그대에게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행복스튜디오(24일) - 조성태 한의사가 출연해 건강상담을 받는다. △무명을 밝히고(27일) - 종단, 신행, 학술 등 한주간 일어난 불교계 소식을 전해준다.
- 불교TV: △김병조 토크쇼: 오랜만에 안방극장을 찾은 불자 가수 이은하씨가 출연해 초등학교 6년때인 데뷔시절부터 20장의 앨범을 내기까지 연예계 생활의 애환을 들려준다. 특히 77년에 발표해 인기를 얻었던 '밤차'란 곡의 안무에 얽힌 에피소드도 밝힌다.